

“현재 역할·믿음에 최선 다해야죠”

AG 예비 엔트리 KIA 김기훈 사령탑이 꼽은 ‘키플레이어’ “편안한 야구 보여주고 싶다”

“아직 예비 엔트리로서...제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KIA 타이거즈 좌완 투수 김기훈(23)이 테크마크를 향해 조심스러운 욕심을 내비쳤다.

김기훈은 지난달 28일 KBO가 발표한 항저우 아시안게임 예비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최종 엔트리가 아닌 만큼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지만 테크마크는 누구나 꿈꾸는 목표. 하지만 아시

안게임 출전을 바라기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만난 김기훈은 “대표팀에 발탁된 것이 아니고 예비 엔트리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느낌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누구나 테크마크를 달고 싶은 욕심이 있다. 신인 때 몇 번 예비 엔트리에 들었는데 그게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 현 위치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 동성고 출신인 김기훈은 2019년 1차 지명료 KIA에 입단, 당시 ‘제 2의 양현종’ 이라고 불리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그러나 프로무대에 적응하는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 않았다. 공은 빠르는데 제구 문제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김기훈은 2년 차 시즌을 마친 뒤 군 입대를 결심, 국군체육부대에 입단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김기훈에게 전환점이 됐다. 상무를 거치며 제구에 안정감을 찾았던 김기훈은 전역 후 곧바로 1군에 합류했다.

김기훈은 “상무에서 던지는 매커니즘을 수정했다. 이전에는 던질 때 급하게 던졌다면 상무에서는 그런 점들을 잡으려고 노력했다”며 “중심이 빨랐었는데 여유 있게 던지면서 지금의 투구폼과 똑같이 던지려고 하고 매커니즘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기훈은 김종국 KIA 감독으로부터 “좌우를 가리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평을 받으며 올 시즌 키플레이어로 선택을 받았다.

김 감독의 기대만큼 성장하고 있는 것 같

나는 질문에 김기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아직 불넷이 많다. 주자가 나갔을 때, 팀이 끌려가고 있을 때 내가 잘 막아줘야 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상 타자와 승부할 때 공격적으로 던지려고 한다. 밸런스가 안 맞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이 나타났다. 하지만 감독님께서 늘 믿고 나를 올려주시니 나도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팬들에게 ‘편안한 야구’ 를 보여주고 싶다는 김기훈은 “어떤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르든 믿음 가는 투수가 되고 싶다”며 “팬분들께 내가 나가는 경기만큼은 걱정 없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야구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조혜원 기자



김기훈

광주·전남 장애학생체전 ‘메달 레이스’

풍암고 안성빈 수영 100m 금 전남 김주환 등 육상에서 금 4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첫날 광주·전남 선수들이 메달 레이스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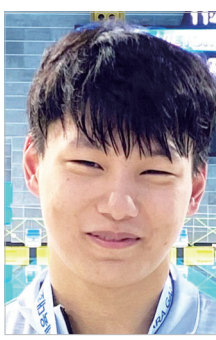
광주선수단에서는 풍암고 안성빈(1년)이 금메달 소식을 전했다.

안성빈은 16일 문수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S5-S6(지체장애) 고등부에서 1분46초55의 기록으로 금

메달을 획득했다. 안성빈은 자신의 마지막 학생체전을 금메달로 마무리했으며, 내년부터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더불어 빛고을고 김지윤(2년)은 여자 자유형 100m S14(지체장애) 고등부에서 1분31초69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역도에서는 광주선광학교 정경호(6년)가 남자 -70kg급 초등부에서, 송은결(5년)이 남자 +70kg급 초등부에서 각각 동메달 3개씩을 획득했다.



안성빈
광학고 박은서가 여자 800m T20(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육상에서 4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덕수학교 김주환이 남자 포환던지기 F20(중), 장주일이 남자 800m T20(고), 목포인성학교 조정인이 남자 높이뛰기 T20(초), 은광학교 박은서가 여자 800m T20(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최진화 기자



아쉬운 사이클링 히트

15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 파크 옛 캠던 야장에서 열린 2023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경기에서 LA 에인절스 오타니 쇼헤이가 4회 초 3점 홈런을 치고 있다. 오타니는 이날 2루타가 빠진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다. LA 에인절스가 9-5로 승리했다.

/AFP=연합뉴스

태권도 대표팀 세계선수권 출격...남녀 종합우승 다짐

문병영 광주태권도협회 전무 남자부 지도자로 대표팀 합류

태권도 대표팀이 지난 대회에서 농진 세계선수권대회 남녀 통합 우승을 달성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표팀은 16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3 세계태권도연맹(WT) 세계선수권대회 결단식에서 선전을 다짐했다. 문병영 광주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는 남자부 감독으로 합류했다.

한국은 지난해 대회에서 3회 연속 남녀 동반 종합우승을 노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남자부는 종합 우승(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을 차지했지만, 여자부가 종합 11위(은메달 1개)에 그쳤다. 여자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건 35년 대회 역사상 처음이었다.

한국 여자 대표팀은 73kg급 단판 이다빈(서울시청)을 앞세워 정상 탈환을 노린다.



태권도 대표팀 선수들이 16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3 세계태권도연맹(WT) 세계선수권대회 결단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다빈은 2019년과 2021년 대회에서 우승했으나 지난해 대회에선 손가락 부상 여파로 은메달을 목에 걸며 3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여자부 자매 선수인 강보라(49kg급), 강미르(46kg급·이상 영천시청)도 다크호스로 꼽힌다.

둘은 지난해 한국 자매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에 동반 출전했으나 나란히 8강에서 고배를 마셨다.

남자부에선 80kg급 박우혁(삼성에스

원)과 54kg급 박태준(경희대)이 우승 후보로 꼽힌다. 박우혁은 지난해 대회에 이어 2연패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는 이달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고 총 933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한국은 남녀 8개 체급 16명의 선수를 파견한다. 남자부 지도자는 문병영 감독을 중심으로 이원재(한국가스공사), 정동혁(삼성에스원), 안홍업(수원시청), 이대훈 코치로 꾸려졌다. /연합뉴스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오늘 개막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9억원)이 17일부터 닷새 동안 강원도 춘천 라데나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다.

KLPGA 투어에서 유일한 매치 플레이 대회다. 홀마다 타수가 적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총 18개 홀에서 누가 더 많이 이겼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한 라운드에서 부진해도 만회할 기회가 있는 스트로크 플레이와 달리 1대1로 상대와 맞붙어 매 순간 비장 끝 승부를 펼쳐야 한다.

조별리그 세 경기와 16강전, 8강전, 4강전, 결승전 등 5일 동안 최대 7경기를 치러야 하기에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하다.

이 대회에서 아직 타이틀 방어 성공 사례가 없다는 점이 그 치열함을 잘 반영한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동안 2년 연속 우승한 선수는 아직 없고, 김자영만이 2012년과 2017년에 5년 간격을 두고 두 번 우승했을 뿐이다. 그만큼 변수가 많아 어느 대회보다 챔피언 예측이 어렵다.

지난해 우승자는 당시 2년 차였던 홍정민이었다. 홍정민은 16강전에서 박민지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더니 송가은, 임희정 등 정상급 선수들을 잇달아 격파했다.

올해 디펜딩 챔피언으로 출전하는 홍정민은 통산 2승째를 수확하는 동시에 첫 타이틀 방어에 영예를 누리겠다는 각오다.

작년 결승전에서 홍정민에게 역전패했던 이에원은 설욕에 나선다. 지난 시즌 신인왕 이에원은 올 시즌 첫 국내 대회인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서 투어 첫 우승을 거뒀다.

상급랭킹 1위 박지영을 비롯해 이주미, 최은우, 이다연, 박보검, 임진희 등 이번 시즌 챔피언들도 시즌 2승 선착 경쟁에 뛰어들다.

제작년 대회 우승자이자 2년 연속상급왕에 빛나는 박민지는 올 시즌 첫 우승 신고를 노린다.

신인상 포인트 1위를 달리는 김민별과 장타력을 뽐내는 방신실 등 신인들의 활약도 관련 포인트다.

올해 출전 선수는 총 64명으로, 지난해 상급랭킹 60위 이내 선수들과 올 시즌 상급랭킹 상위 랭커가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시즌 2승’ 고진영, 세계랭킹 2위로 상승

고진영이 세계랭킹 1위 탈환에 시동을 걸었다.

고진영은 16일 발표된 여자골프 주간 세계랭킹에서 2위에 올랐다. 지난해 2위였던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자리를 바꿨다.

지난주 3위에서 1계단 올랐지만, 상승에 담긴 의미는 크다.

지난 해 11월 1위 자리에서 내려온 고진영은 지난 연말부터는 5위까지 밀렸다.

넬리 코다(미국)와 리디아 고에 크게 밀렸고 이민지(호주), 아타야 티피꾼(태국)에게도 뒤졌다.

지난 3월 HSBC 월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3위가 된 고진영은 두 달 만에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제패로 랭킹 포인트를 듬뿍 받았다.

첫 탈락한 세계랭킹 1위 코다와 간격은 바짝 좁혔고, 이번 대회에서 공동4위에 그



고진영

친 리디아 고를 제쳤다.

세계랭킹 1위에 다시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릴리아 부(미국)가 4위를 지켰고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준우승

이민지는 티피꾼을 6위로 밀어내고 5위가 됐다.

10위 김효주, 12위 전인지는 변화가 없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임진희는 84위로 올라왔다. 지난해보다 19계단 상승했다. /연합뉴스